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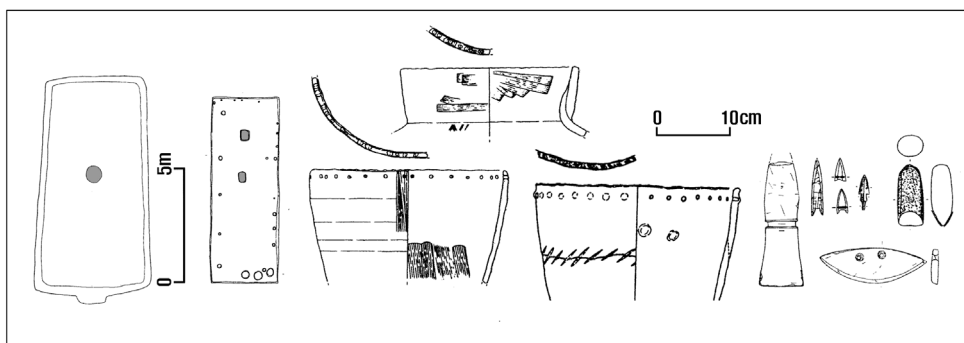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대한 토론문

이형원 (한신대학교박물관)

공렬토기는 구연부의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작은 구멍을 등간격으로 뚫거나(孔列文) 반관통한(突瘤文) 심발형 또는 호형의 청동기시대 토기를 말한다. 이 토기는 남한 전역을 중심으로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중기까지 유행하였는데, 점토대토기문화의 남한 유입 시기부터 시작되는 후기에도 일부 사용되었다. 절대연대로는 기원전 13-12세기부터 5세기까지로 대략 700년에서 800년 정도 제작·사용된 것이므로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한 무문토기로 볼 수 있다. 토기가 집단의 정체성을 강하게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남한의 청동기시대 문화에서 공렬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 공렬토기의 출현과 관련하여 서북한지역이나 동북한지역의 무문토기에서 기원했다는 설과 함께 남한의 즐문토기문화로부터 자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공렬토기는 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 등과 더불어 역삼동식토기군으로, 이와 관련된 토기문화는 역삼동유형으로 개념이 설정되었으며(李清圭 1988), 여기에 혼암리유형과의 비교 검토(金壯錫 2001)를 토대로 한 개념인 역삼동·혼암리유형(李亨源 2002)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토론자가 규정한 역삼동·혼암리유형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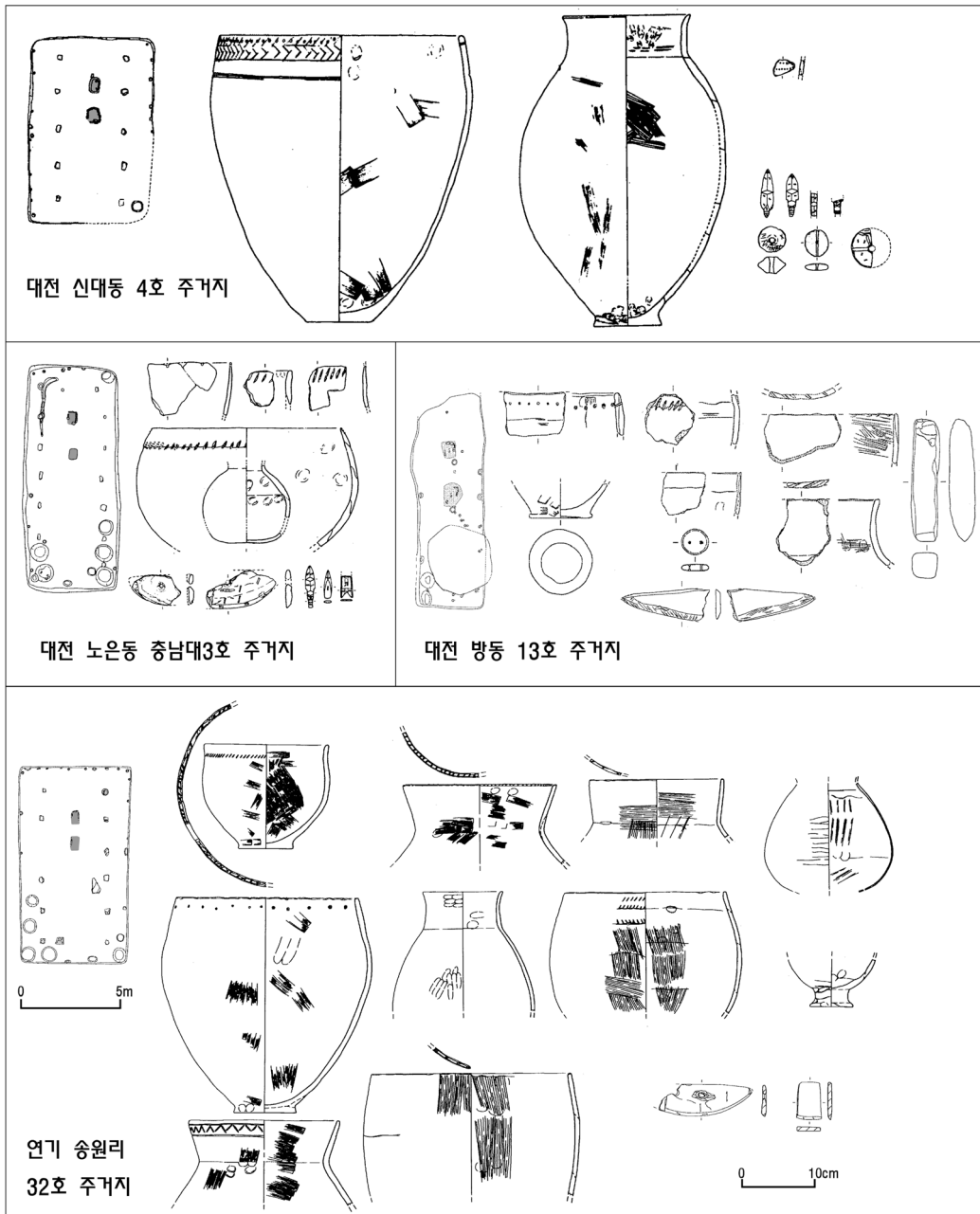
“주거구조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평면에 토광형 또는 무시설식의 노지, 그리고 주공식 기둥배치방식을 중심으로 한다. 토기는 공렬토기(구순각목토기), 적색마연토기로만 구성되거나(역삼동식토기), 이들이 이중구연, 단사선 등과 결합(혼암리식토기) 혹은 공반되는 것 양자를 포함하며, 석기는 (혈구)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이단경석촉, 반월형석도 등을 중심으로 한다”(李亨源 2002, 2009)(도면 1)



<도면 1>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주거지와 토기, 석기(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전기에 역삼동·혼암리유형은 가락동유형과 상호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도면 2>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도면 2> 가락동유형 집중 분포지역의 둔산식주거지(가락동식주거지)에서 출토된 공렬토기와 공반유물이며,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상호작용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형원 2011).

이와 같은 공렬토기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황재훈 선생의 발표문인 “중부지역 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대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1. 발표문의 난독성

발표자가 발표문에 제시한 유적 명칭만으로는 조사기관과 유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¹⁾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발표문에는 도면이 전혀 없는데 이 점 역시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매우 곤혹스럽다. 고고학 논문은 도면이나 표를 통해 무질서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를 배려해주기를 바란다.

2. 공렬토기와 신석기시대 즐문토기의 공반 여부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경기지역의 19개 유적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즐문토기가 출토²⁾된 사례를 제시하였다(발표문의 표 1). 그리고 본문중에 “신석기 말기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경기 서부와 서해안지역의 유구 성격이나 낮은 하한을 염두에 둔다면, 무문토기와 즐문토기의 공반 양상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라고 기술한 점에서 볼 때 이 표에 제시된 유구 가운데 상당수를 무문토기와 즐문토기가 공반된 것으로 인정하는 듯하다. 또한 춘천 내평과 서산 대로리 유적의 공렬토기를 즐문토기와 무문토기의 공반 사례로 보고 이를 공렬토기의 등장과 연결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토론자는 하남 미사리 유적의 돌대문토기 주거지에서 공반된 환저토기를 제외하면, 무문토기와 즐문토기가 공반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양호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³⁾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춘천 내평 유적(崔夢龍 1974)은 부석유구⁴⁾에서 즐문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이 공렬토기는 부석유구와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도면 3). 소형 장방형주거지의 형태나 일체형석축과 일단경식석축으로 볼 때 북한강유역의 천전리유형과 관련될 것이다. 즉 내평 유적의 공렬토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로 편년되며, 수혈주거지의 목탄시료를 대상으로 측정된 탄소14연대 가운데 2590±60BP 연대가 그에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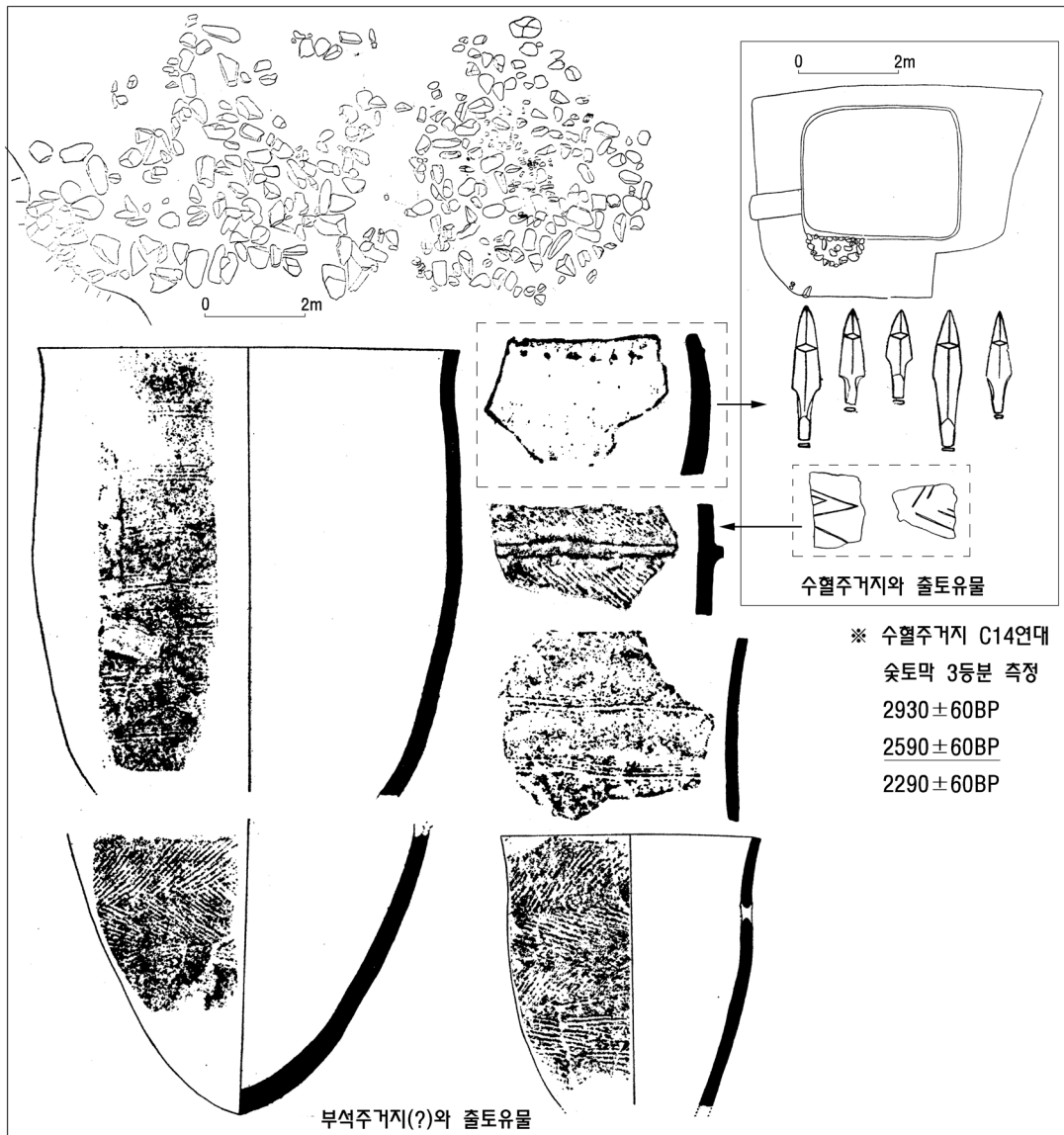
결국 무문토기, 특히 공렬토기와 즐문토기가 공반하는 사례를 고고학적 맥락의 측면에서 보완 설명해주기를 요청한다.

1) 같은 행정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어 보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일 유적에서도 유구에 따라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2) 발표자는 ‘공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공반’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동시기의 사용 또는 폐기 맥락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아직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춘천 중도 유적의 경우는 미사리 유적과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공표된 자료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정보는 없는 실정이다.

4) 보고서에는 부석주거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을 주거지로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도면 3> 춘천 내평 유적의 부석 유구와 수혈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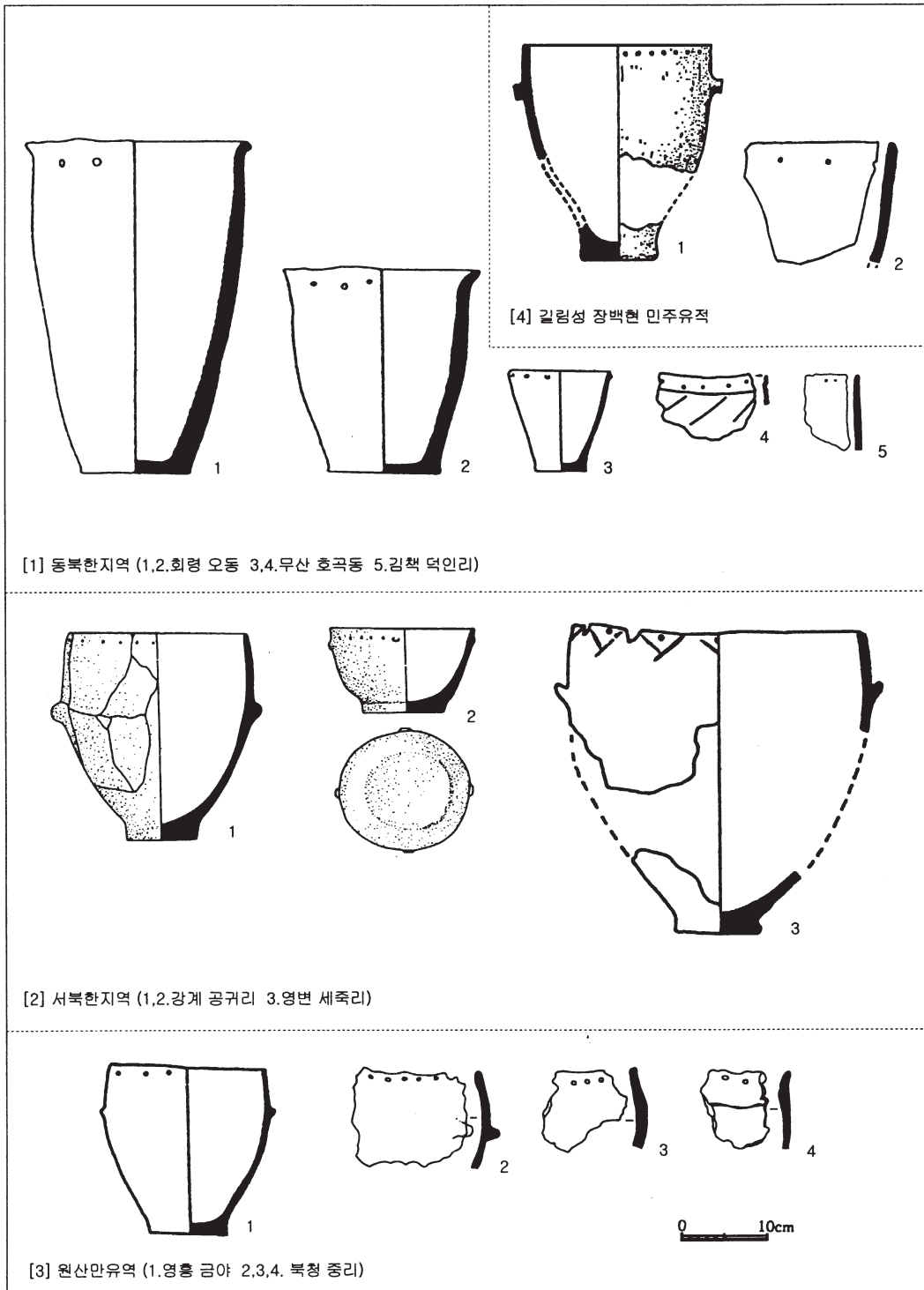
3. 북한지역의 공렬토기 양상 및 남한지역으로의 확산

토론자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자 한다. 남한의 공렬토기문화는 서북한지역과 동북한지역 양 지역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고 본다. 한반도의 공렬토기는 형태적으로 파수가 달린 관통 또는 반관통 공렬토기와 파수가 부착되지 않은 공렬토기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데, <도면 4>에서 볼 수 있듯이 두만강유역에는 파수 없는 공렬토기가, 압록강·청천강유역에는 파수 달린 공렬토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색마연토기가 서북한지역에서는 극히 일부만 보고된 점도 동북한지역 기원설 또한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중국 길림성의 長白縣民主 유적에서도 장방형주거지에서 공렬토기가 확인된 바 있다. 파수가 달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두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노지의 형태가 위석식노지인 점에서도 두만강유역, 송화강유역, 압록강유역의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반도의 공렬토기가 서북한 및 동북한 양 지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적 선후관계 및 파급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그리고 역삼동·흔암리유형의 형성은 압록강·청천강유역에서 발현한 물질문화가 남하하였거나 또는 적색마연호⁵⁾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면 원산만유역에서 동북한의 무문토기문화와 접촉한 상태에서 남한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인 황재훈 선생은 청동기시대 초기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으며, 공렬토기(역삼동식토기)를 비롯하여 돌대문토기(미사리식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락동식토기), 이중구연단사선공렬문토기(흔암리식토기)를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남한의 무문토기들은 북한지역 무문토기문화가 남쪽으로 확산한 결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같은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이라고해도 이와 같은 토기문화 가운데 가장 먼저 남하한 것은 무엇이며, 북한의 어떤 지역에서 남한의 어떤 지역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산되었다고 보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공렬토기가 출토된 주거지는 어떤 유적의 어떤 유구 출토품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 참고로 필자는 하남 미사리 유적 송실대 A8호, 서울대 A3호, 여주 흔암리 9호, 강릉 교동 1호, 진주 상촌리 D-10호 주거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李亨源 2007).

5) 압록강유역의 신암리 유적에도 적색마연토기가 존재하지만 보고된 기종은 완이나 대부완 뿐이다.



<도면 4> 북한지역의 공렬토기 (李亨源 2002)

4. 탄소14연대측정결과의 활용 문제

발표자는 탄소14연대를 근거로 청동기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전기는 전반, 중반, 후반으로 세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부지역 공렬토기문화의 확산과 문화변동을 설명하였다.

〈표 1〉 발표문(황재훈)의 경기지역 시기구분 (본문내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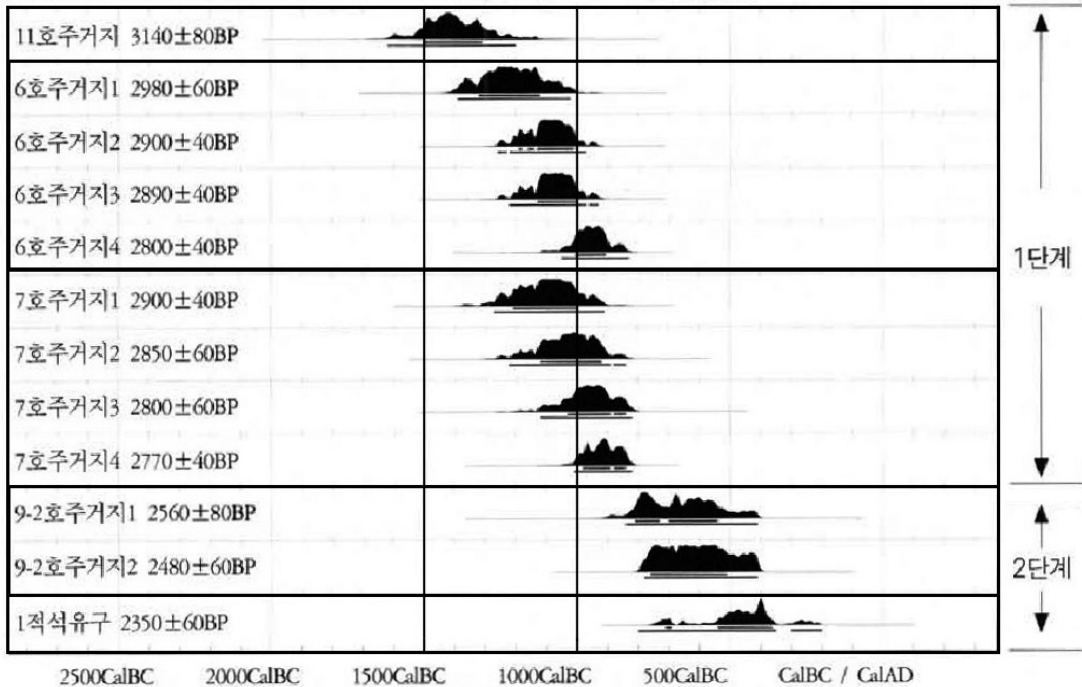
시기 구분	절대연대	경기지역 토기 양상 및 대상 유적		비고
전기 전반	BC14-13C (3200BP)	서부	<각형토기> 인천 운서동Ⅲ, 김포 양촌, 강화 삼거리, 김포 양곡1-5, 학운리3-1-1호	
		중부 남부	<(구순각목)공렬토기> 시흥 목감동, 능곡동, 수원 울전동, 이목동, 화성 천천리, 율암리, 평택 현화리 음각선문 (단종선문, 거치문, 단사문, 사격자문, X선문, 파상문) 수원 이목동, 여주 혼암리 <돌대문토기> 인천 중앙동, 화성 정문리	
전기 중반	BC11C중반 (2950BP)	서부	<각형토기> 김포 양촌, 운양동, 마송, 인천 검단 <역삼동유형> 김포 양촌, 인천 원당동, 구월동, 부천 고강동	
		북서부	<각형토기> 연천 삼거리, 강내리, 파주 당동리	
		중부	<역삼동유형> 수원 울전동, 화성 천천리, 시흥 계수동, 안양 관양동, 수원 금곡동, 화성 고금산	
		동부 남부	<역삼동유형> 하남 미사리, 남양주 호평동, 성남동 판교, 광주역동, 서울 고덕동, 하남 덕풍동, 망월동, 용인 대덕골, 평택 토진리, 칠곡동, 양교리, 소사동, 화성 남양동Ⅱ, 쌍송리	
전기 후반	BC10C중반 (2830BP)	서,북부	<역삼동유형> 파주 당동리, 김포 양촌, 인천 원당동	
		중,동부	<역삼동유형> 시흥 능곡동, 안양 관양동, 수원 금곡동, 하남 망월동, 광주 역동, 성남 동판교, 이동, 성남 여수동, 용인 영덕동, 마북리, 하남 망월동구산	
		남부	<역삼동유형> 오산 내삼미동, 화성 남양동, 쌍송리, 평택 양교리 산41-1, 양교리, 소사동	
후기	BC 8C전반 (2700BP) - BC 5C전반 (2400BP)		<공렬토기 (투공수 감소 및 탈락화, 공렬간격 넓어지고 구멍작아짐), 무문양토기, 저부투공토기, 타날문토기> 인천 중산동, 원당동Ⅱ, 구월동, 파주 당동리, 고양 도내동 도당, 도내동·원흥동, 광명 가학동 산100-3번지, 김포 양촌, 광주 역동, 화성 반송리, 오산 청학동	역삼동Ⅱ유형 (중산동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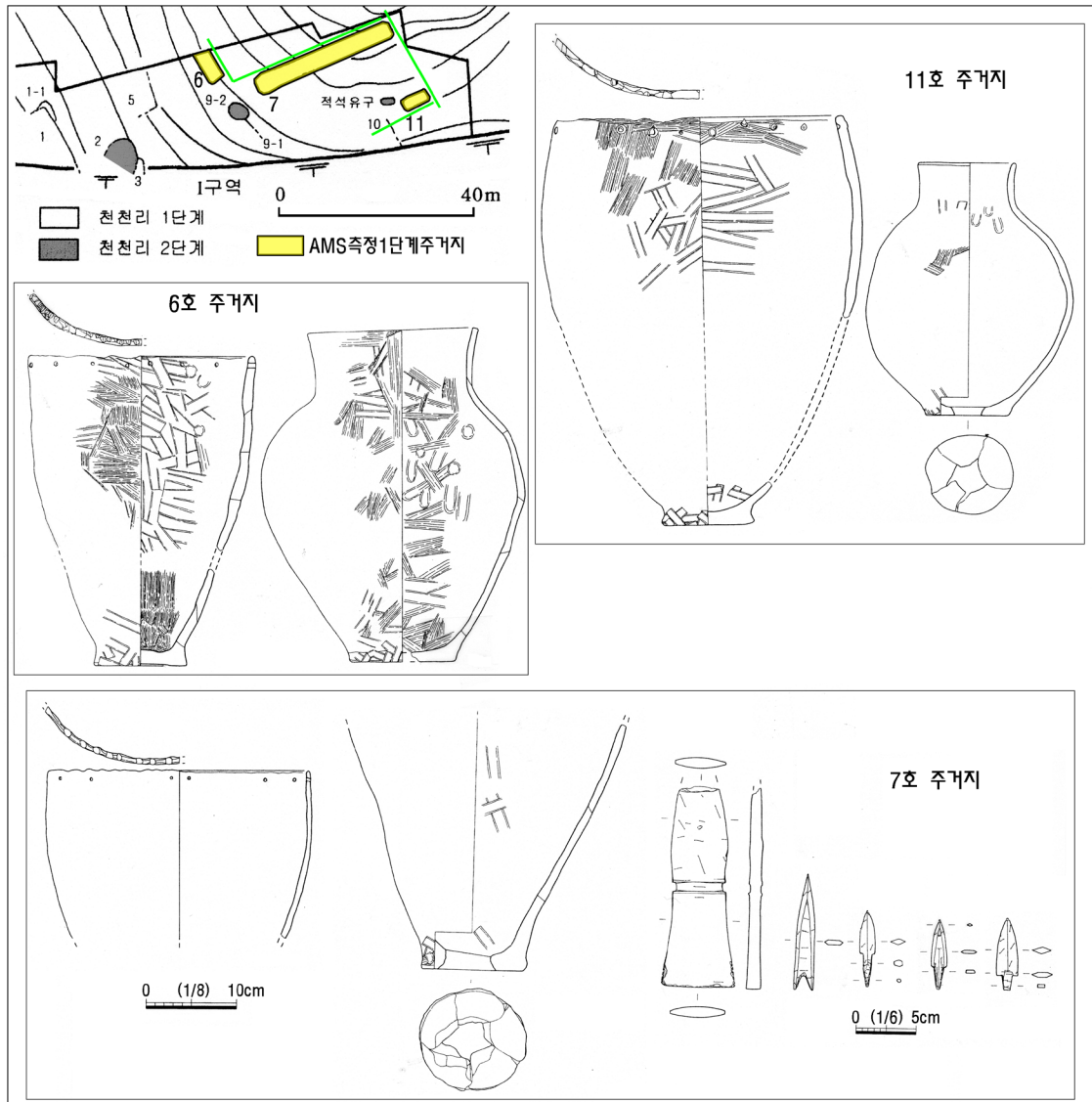
<표 2> 화성 천천리 유적 청동기시대 주거지 AMS연대측정결과

시료번호	유구	측정연대	보정연대 (2σ, 95%)	보정연대 (1σ, 68%)	중심 연대	비고
HS-1	천천리 6호	B,P.2800±40	B.C.1050~830	B.C.1000~900	B.C.950	동일시료
HS-2	6호	B,P.2890±40	B.C.1220~970	B.C.1130~1000	B.C.1070	
HS-3	6호	B,P.2900±40	B.C.1220~970	B.C.1130~1000	B.C.1100	
HS-4	6호	B,P.2980±60	B.C.1390~1010	B.C.1370~1360 B.C.1320~1120	B.C.1220	동일시료
HS-5	7호	B,P.2900±60	B.C.1290~910	B.C.1220~990	B.C.1110	동일시료
HS-6	7호	B,P.2770±40	B.C.1000~820	B.C.940~890 B.C.880~830	B.C.910	
HS-7	7호	B,P.2850±60	B.C.1220~890 B.C.880~830	B.C.1130~920	B.C.1030	동일시료
HS-8	7호	B,P.2800±60	B.C.1130~820	B.C.1010~890 B.C.880~830	B.C.950	
HS-9	9-2호	B,P.2480±60	B.C.790~410	B.C.770~510	B.C.640	
HS-10	9-2호	B,P.2560±80	B.C.840~400	B.C.810~750 B.C.720~520	B.C.620	
HS-11	11호	B,P.3140±80	B.C.1610~1210	B.C.1520~1310	B.C.1420	
HS-12	적석유구	B,P.2350±60	B.C.800~200	B.C.760~720 B.C.540~360 B.C.280~260	B.C.450	

Atmospheric data from Reimer et al (2004); OxCal v3.10 Bronk Ramsey (2005); cub r:5 sd:12 prob usp[chron]



<표 1>은 경기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 대해서 발표문에 있는 유적을 그대로 옮겨서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화성 천천리 유적(이남규외 2006)을 사례로 들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천천리 유적의 주거지를 전기전반(3200BP-2950BP)과 전기중반(2950BP-2830BP)의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천천리 유적에서는 전기로 판단되는 주거지 가운데 6호, 7호, 11호 주거지의 AMS연대측정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토론자의 추정이 맞다면 11호 주거지를 전기전반으로 6호와 7호 주거지를 전기중반으로 구분했을 것이다. 그런데 토론자는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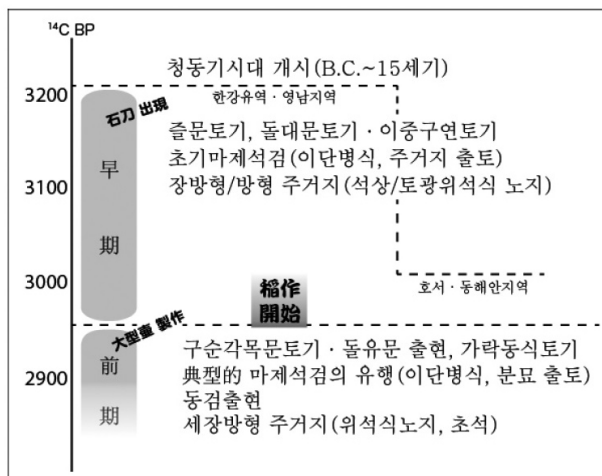
<도면 5> 화성 천천리 유적(이남규외 2006)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분포와 출토 유물 : 1단계는 전기후엽, 2단계는 중기에 해당한다. 6, 7, 11호 주거지는 공간적 배치와 유물로 볼 때, 동시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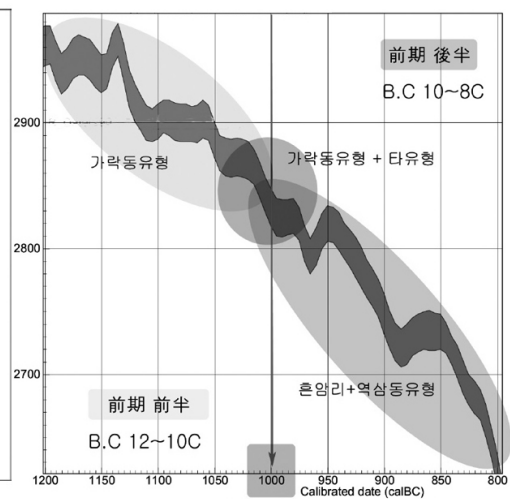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거 배치의 공간적 정합성이나 유물의 양상으로 볼 때, 이 3기의 주거지는 동시기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전기전반이나 중반이 아닌 전기후반으로 파악한다. 즉 천천리 유적의 탄소14연대결과 가운데 3140±80BP가 나온 11호는 이상측정치로 판단하며, 6호와 7호는 동일한 목탄을 분리해서 측정의뢰한 것 가운데 늦은 연대에 해당하는 2800±40BP(6호), 2770±40 및 2800BP(7호)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발표자가 천천리 11호를 전기전반으로, 6호와 7호를 전기중반으로 설정한 근거는 탄소연대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보완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6호와 7호와 같이 탄소연대가 다르게 나온 것 가운데, 늦은 연대가 아닌 이른 연대를 취한 이유가 궁금하다.

한편 청동기시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를 시기구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황재훈과 이창희는 절대연대를 활용한 편년연구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두 연구자의 편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면 6>은 이창희(2013)와 정대봉(2013)이 작성한 초기-전기편년이고, <도면 7>은 황재훈(2014)의 토기 문양 분포 편년이다. 이 가운데 황재훈은 공렬토기와 구순각목토기, 혼암리식토기의 시작을 3200-3100BP로 보지만, 이창희는 이 문양들이 2950BP에 출현한 것으로, 정대봉은 2850BP로 보는 등 편차가 심하다. 동일한 절대연대 측정치를 어떻게 분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편년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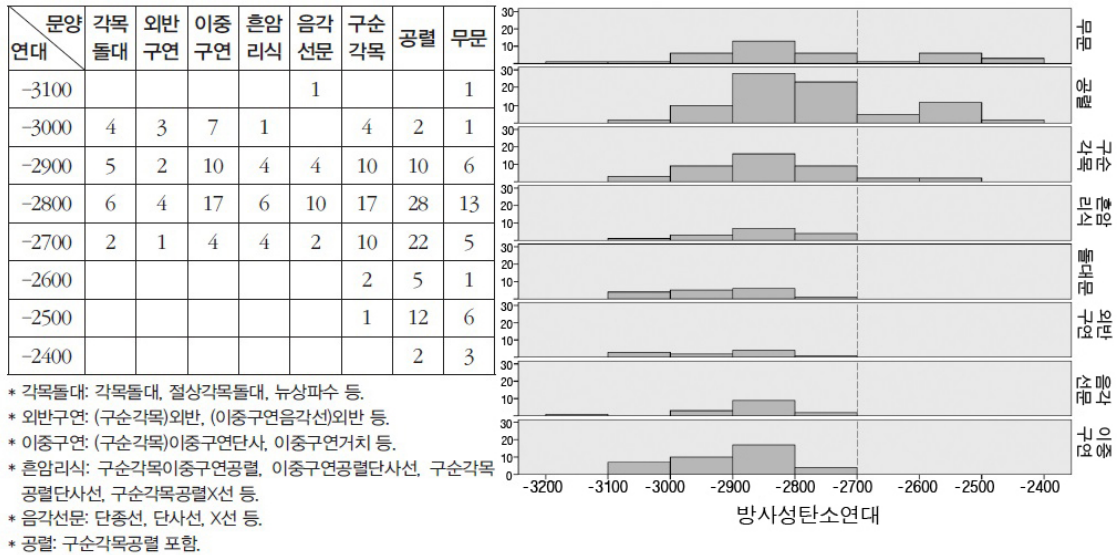


이창희(2013)에 의한 탄소14연대를 이용한 초기 편년



정대봉(2013)에 의한 서울,경기지역 전기 편년

<도면 6> 이창희(2013), 정대봉(2013)의 초기-전기 편년



<도면 7> 황재훈(2014)의 중서부지역 토기 문양 탄소14연대 분포

이와 같이 절대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발표자의 편년과 이창희나 정대봉의 편년이 200-3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5.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하여

경기지역의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화성 반송리 유적(權五榮 외 2007)을 표지로 하는 반송리식주거지에서 공렬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들은 호서지역의 송국리유형 물질문화가 경기지역으로 확산하여 역삼동유형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즉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 사이의 문화접변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기남부에서 충청북부지역에 걸치는 지역에서 송국리유형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으로, 이는 역삼동유형에서 송국리유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송리식주거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즉 송국리유형 재래기원설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토론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고견을 부탁한다.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 구리고 반송리식주거의 시간적 선후관계와 문화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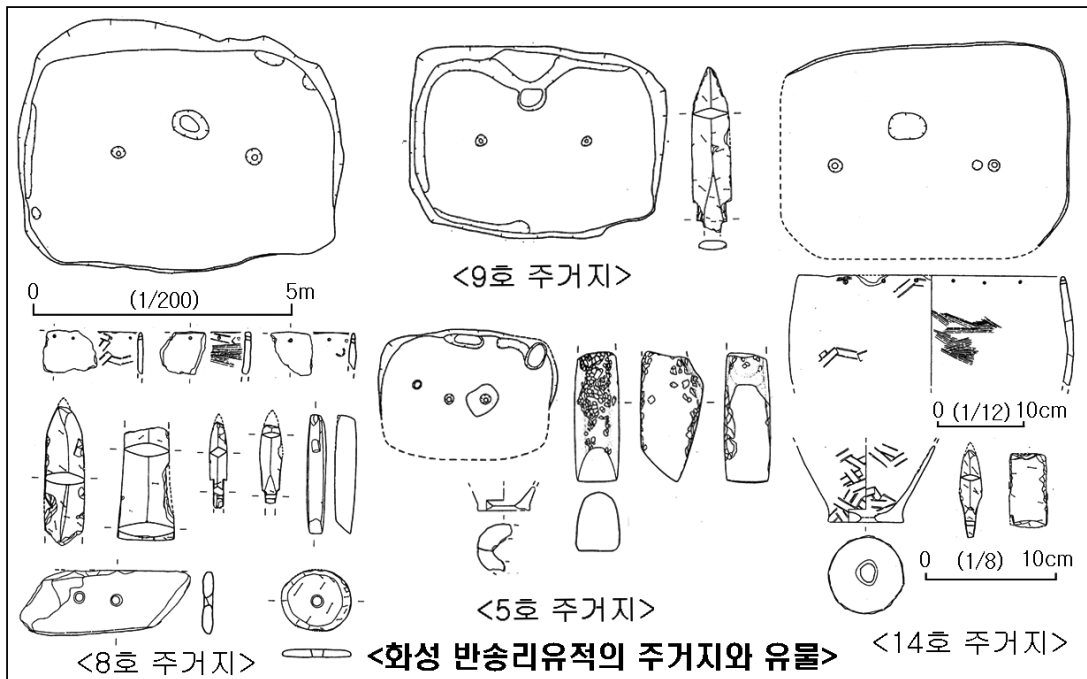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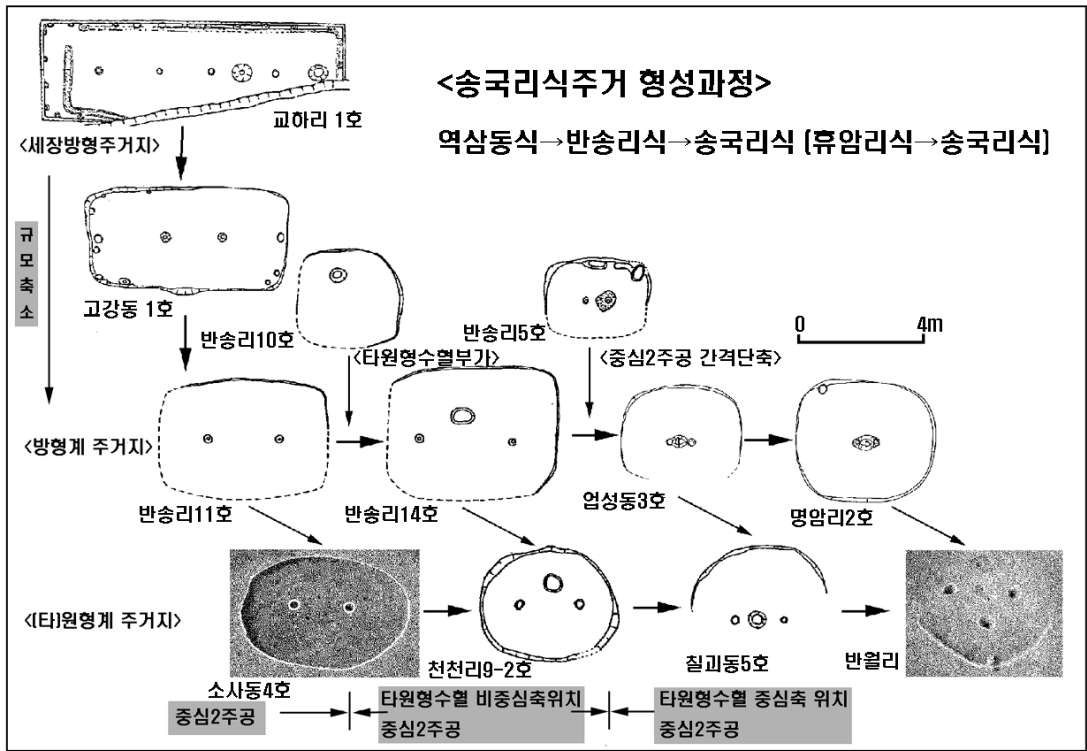
6. 시기구분 관련

발표자는 2014년 논문에서는 송국리유형 단계를 중기로 하였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중기 대신 후기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7. 나머지 말

발표자인 황재훈 선생과 토론자는 청동기시대 공렬토기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이른시기부터 역삼동식토기가 미사리식토기, 가락동식토기, 그리고 혼암리식토기 등과 공존하는 것으로 보며,⁶⁾ 이와 같은 토기들을 제작 사용한 집단들이 지역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역삼동유형에서 송국리유형으로의 변천양상을 바라보는 편년적 시각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토론자는 발표문의 논지를 대체적으로는 수용한다. 다만 발표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더 완성도 높은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6) 다만 토론자가 이른 시기 돌대문토기를 조기로 보는 점은 다르다.



<도면 8> 송국리식주거 형성과정과 화성 반송리 유적의 주거지 및 유물(이형원 2006, 2010)



| 참고문헌 |

- 權五榮·李亨源·申誠惠·朴重國, 2007,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金壯錫, 2001, 「흔암리 유형 재고:기원과 연대」, 『嶺南考古學』28.
- 이남규·권오영·이기성·이형원·신성혜·조성숙·이진민·한지선·김여진, 2006, 『華城 泉川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이창희, 2013, 「청동기시대 초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발표요지.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報』1.
- 李亨源, 2002, 『韓國 青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2006, 「천천리 취락의 편년적 위치 및 변천-송국리유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華城 泉川里 青銅器時代 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 2007, 「南韓地域 青銅器時代 前期의 上限과 下限」, 『韓國青銅器學報』1.
- ,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 2010,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과 송국리유형 형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고학』10-12.
- , 2011, 「둔산유적 발굴, 왜 중요한가?」, 『둔산 발굴 20년, 그리고 오늘』, 대전선사박물관.
- 정대봉, 2013, 「청동기시대 전기의 역연대-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崔夢龍, 1974, 「昭陽댐 水沒地區遺蹟 發掘調査」, 『八堂·昭陽댐 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査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황재훈, 2014, 「중서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의 시간성 재고」, 『韓國考古學報』92.

“호서지역 공렬토기의 출현과 전개과정”에 대한 토론문

허의행(한국고고환경연구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전기의 공렬토기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역삼동유형과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의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가락동유형, 돌대문토기 문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사리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필 수 있으며, 최근에는 호서의 동북쪽(충북지역) 지역을 중심으로 조동리유형의 설정도 제기되었다. 물론 그 이후 시기에는 송국리유형이 호서지역에 자리하면서 전기의 복잡한 취락유형은 어느 정도 통일되어 간다.

이러한 다양한 취락유형의 존재로 인해 호서지역은 취락유형별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락유형 상호간 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취락유형의 설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여전하여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진전된 연구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동일한 물질자료를 어느 취락유형에 포함하느냐에 따른 논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금번 학술대회에서 논의 되는 내용이 앞으로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의 정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발표자는 토론자와 같이 호서지역 내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형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본 발표문이 작성되었다. 토론자가 파악한 바로는 본 발표문은 호서지역 내 공렬토기의 출현에 대해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였고 쟁점과 관련한 몇가지 의견 등을 피력하였다.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도 있지만 달리하는 부분과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발표자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렬토기를 전기 역삼동유형 취락의 표지적인 문화요소의 하나로 보고 계시는데, 토론자가 알기로는 가락동유형의 취락에도 전체의 양상은 아니지만 일부 공렬토기의 존재가 알려지고 있고, 후기의 취락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삼동유형 취락만의 고유의 물질 문화요소로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타 취락유형에서 확인되는 공렬토기의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견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두 번째로 토론자가 파악한 바로는 호서지역 공렬토기의 기원을 역삼동·흔암리유형 취락과 논하면서 가락동유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유입된 외래문화로 보면서(11쪽)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및 심지어는 신석기문화와도 연결되는 복잡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듯하다(12쪽). 호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성은 자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토론자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인접한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물질자료의 모습이 호서지역 역삼동유형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접



근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굳이 이보다 먼 거리인 한반도 북쪽 지역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호서지역 인근의 역삼동취락과의 관계는 어떠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주셨으면 한다. 관련하여 역삼동유형의 기원과 계통을 X자문과 사격자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요동지역과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인근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에서 이와 유사한 문양의 존재는 없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세 번째로 강원지역의 전기 청동기시대 취락을 살펴보면서 이 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가락동과 역삼동·흔암리유형이 복합되어 있음을 언급하였고, 취락유형의 호서지역 내 확산과정에서 두 유형으로 갈라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형적인 전파론적 시각의 연구성으로 보여지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두 유형의 전파와 확산의 루트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양방향 또는 여러 방향의 확산으로 진행된 것인지, 그렇다면 호서지역에서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일 것인지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발표문 내용을 보면, 호서지역 전기 청동기시대 역삼동유형 유물은 기원과 계통이 한반도의 서북쪽과 요동반도 지역이며 취락은 강원 동부지역에서 호서지역으로 이동 및 확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고 물질자료의 투 트랙으로의 형성, 즉 유구를 포함한 취락유형은 호서지역에 먼저 등장하고, 유물 등의 문화요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호서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이 결합하여 호서지역 내 전기 취락문화를 이루어 낸 것인지가 궁금하다.